



■ 시대 드러낸 '백제 미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불만되는 마애삼존불상이 드디어 자태를 드러냈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마애삼존불상은 가로 4.5m, 세로3.6m 크기로 서산마애삼존불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7일 준공식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준공 기념 및 마애삼존불 제막식이 2월 17일 오후 2시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다. 고불식, 마애삼존불 제막식, 축사, 축하공연, 테이프 절단식 등으로 이뤄지는 1차 준공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비롯, 정·관계 인사와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교구본사 주지회의도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反 환경 정치인 우리가 심판”

환경단체, 17대 총선 낙천·낙선 운동 결의

‘반 환경적 정치인은 우리가 심판한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반 환경적 정치인에 대한 본격적인 낙천·낙선 운동에 돌입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 50여 환경단체들은 2월 4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2004 총선환경연대(공동집행위원장 서주연,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를 발족시키고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남동우 기자

“불상이 케이블카보다 흥물”

통영시장, 불교 폼파 발언 용화사와 합의 제기도 을 세우 놓으면 케이블카보다 더 흥물이 될 것”이라고 불교를 폼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진 시장은 또 “(통영 용화사가개문 화재로서 보수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보수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타협이 잘 됐다”라며 조계종과 합의 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다. 남동우 기자

“108참회·가족참선·보시 등 16가지 청구 실천” ‘생전예수재’를 ‘수행결사’로

본사 ‘생활 속 수행’ 제시

기복신앙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던 생전예수재가 재가불자들의 수행결사로 거듭났다. 본사는 2월 27일부터 4월 18일까지 열리는 생전예수재를 ‘참회하고 공덕 짓는 예수재’를 주제로 한 ‘참살림 수행결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전예수재는 ‘참회를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태된 채’로, 수생전(受生錢)을 보시해 생전의 빚을 갚아야 극락왕생한다는 내용만 부각됐다. 이는 사찰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해 불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본사가 ‘참살림 수행결사’를 기

획한 이유도 이번 결사를 통해 윤달에 49일 동안 열리는 생전예수재를 ‘생활 속의 수행’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한국불교의 올바른 수행의 모델로 제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참살림 수행결사는 16가지 청구를 제정해 실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결사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108 참회, 지장기도, 지장염불, 5계 지키기, 가족 참선, 매일 일일행 보시하기, 송경, 사경, 보살행 등 청구를 매일 실천하고, 이를 지도법사 스님으로부터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번씩 청구와 수행에 대한 수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자율적인 수행결사이면서도 입재일, 화랑일, 7일 7재 동참을 비롯해 결사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청구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49일 동안 수행한 후 헌혈, 장기기증·사후 시신 기증 서약 등의 보살행으로 결사를 회향한다. 결사 기간 중 행해지는 각종 봉사, 보살행 등은 생명나눔운동본부, 강북종합사회복지관, 역삼청 소년수련관, 삼전종합복지관, 작은보시 큰 자비 등의 단체들로부터 협조를 받기로 했다. 본사 교무국장 해문 스님은 “7일 간격으로 법회를 여는 생전예수재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사찰에서 이뤄지는 수행을 가정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우반본전에 2차 수행결사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명 기자 bypark@buddhapia.com

북한산·천성산 지키기 환경운동

평가 토론회 열린다

북한산 천성산 등 2003년을 뜨겁게 달궜던 환경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운동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공동대표 일민)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서 2월 10일 오후 1시부터 ‘2003 환경운동 심층평가와 새로운 운동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천성산,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로 바라는 환경운동’ 분과에서 이병인 밀양대 교수는 ‘천성산,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의 현황과 평가’를,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천성산,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의 전망과 해법’을 각각 발표한다. 염태영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과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박

선경 우이령보존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조승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환경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 뒤 서주연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등이 토론을 한다. 북한산 관동도로 저지 운동의 한 축이었던 불교환경연대도 지난 2년여간의 북한산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월 12일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4강의실에서 열리는 ‘북한산 국립공원 반대활동 평가 토론회’는 ‘북한산 관동도로 반대활동과 불교환경연대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박선경 시민사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이 ‘북한산 관동도로 반대활동의 성과와 반성’을, 박석동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이 ‘불교환경활동의 새로운 모색’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발제후 소주제에 따라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대학 템플스테이 강좌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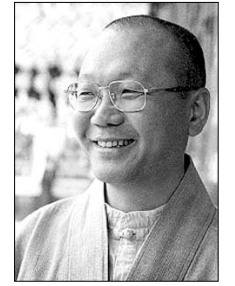
중앙대 10분만에 신청 마감 적으로 황폐해져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라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이 강좌는 오는 3월부터 공주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이 4주간 명상, 화두선 등의 명상법 이론을 강의한 뒤, 4월부터는 2박3일간 일정으로 마곡사에서 108매 및 새벽속길 걷기 명상, 발우공양, 자기 마음 열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경주서 발견된 원지 분황사 인공못 추측 경주 ‘황룡사 전사관 건립부지’에서 발견된 ‘원지(苑址)’는 분황사 인공 못으로 추측된다는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공진)가 분황사 동편 외곽

“직할교구 본사서부터 선 수행 바람몰이 할 터”

인터뷰

전국 선원장 초청대법회 여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에서부터 선 수행 기풍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조계사주지 지홍(화)과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동주최하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앞둔 지홍 스님은 “이번 법회를 조계사 ‘수행원년’의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선 수행의 현장에서 실천실수하는 선원장 스님들을 초청, 최근 문제가 됐던 잘못된 ‘간화선 위기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재가 신도들의 수행을 고취해 수행의 대중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제방 선원에서 스스로 간화선을 탐구하고 후학들을 양성중인 선원장급 이상의 선 지도자들이 연이어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총 12회) 법회를 갖는 것은 조계종 최초의 일. 이런 뜻깊은 불사가 조계사에서 개최된 것은 오래 전부터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져 온 지홍 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이었다.

수년전 종회 포교분과위원장으로서 활동할 당시에도 포교원에 <재가자 수행지침서>를 편찬하도록 독려했으며 이미 2년전 사내에 수행원을 설립, 재가자들의 참선과 간경, 염불 수행의 틀을 다져온 것도 수행에 대한 일관된 관심 때문이었다. 지난 1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폭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수행법 대강좌’ 역시 수행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조계사의 변신을 웅변하는 대목이다.

“종단의 정체성은 수행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복신앙에 만족해 온 불교가 이제는 수행불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신앙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행이 중심이 되는, 그것도 조계종의 제1종책인 ‘간화선 중심의 수행 종풍(宗風) 진작’에 앞장서고 있는 지홍 스님은 입적한 광덕 스님의 상좌로서 스승의 ‘반야바라밀 수행법’ 즉, 참선, 계율, 간경, 염불, 보살행 등의 5대 방편을 충실히 뒤어왔다.

지홍 스님은 “이번 법회는 선 지시들의 살아있는 법문을 도식에서 들을 수 있는 드문 기회가 화두선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밝은 청정 맑은 깨끗한 맑은 금강경 매주 불사

금강경 독송에서는 불사리가 내려오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불사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석아들을 돕기 위해 매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불사주는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더욱 들어있습니다. 불사주는 100% 우리공을 가마솥에 삶은 쌀을 윤과 장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향로로 만든 불사에서 40일간 자연 건조시킨 전통 무궁화 매주 불사입니다. 해마다 드려오신 불사마다 뜻깊게 맞고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황금과 같습니다. ■문의 및 예약: 금강경 불사(통영) 고추장 조희진, 국간장, 최국만 ■해주 주문 연락처: TEL 010-820-5587 ■문의 및 예약: 서울 054281-2231 서울 02742-0172 부산 051514-3566 대구 053405-3063 울산 052245-0337 대전 042862-8638 창원 055299-5419 수원 031253-2877 군산 063455-7852 광주 062681-3258 경북 033644-9009 ■복사본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진산법연



초대합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이 다가오는 날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정념스님 취임법회를 마련하고자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격려와 축하로 깨어있는 도량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일시 : 불기 2548(2004년) 2월26일(목요일) 오전 11:00
◎ 장소 : 월정사 대적광전



수회동참바랍니다.

이번 진산법연에 화환이나 화분 등 축하용품을 정중히 사절하오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에게 정성을 나누고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조주희 어린이에게 일편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섬수하시고 수회동참바랍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13065-55-000803
◎ 문의전화 : 월정사 종무소 TEL 033-332-6661~6664 FAX 033-332-6915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